

BTS, 그레미 아성 넘었다 ... 한국 대중음악 최초 후보 지명

‘다이너마이트’, ‘베스트 팝 그룹 퍼포먼스’ 후보 ... 수상하면 ‘그랜드슬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 음악시상식인 그레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며 K팝 역사에 또다시 한 획을 그었다.

그레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 24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레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한국 대중음악이 그레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BTS는 이로써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3대 음악시상식에서 모두 후보에 오른 기록을 갖게 됐다.

이들은 그레미에 앞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s)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 (BBMAs)에서는 이미 각각 3년과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그레미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방탄소년단은 63회 그레미 어워즈에서 ● 제이 빌런·두아 리파·배드 비니&타이니의 ‘언 디아’ ● 저스틴 비버와 케이보의 ‘인텐션스’ ●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이베어의 ‘엑시일’ 과 함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트로피를 겨루게 된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그레미 팝 장르 세부 시상 분야 중 하나로, 2012년 시상식부터 신설됐으며 듀오 또는 그룹, 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뮤지션에게 준다. 그동안 래퍼 릴 나스 엑스와 빌리 레이 사

이러스의 ‘올드 타운 로드 리믹스’ (2020년),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셀로’ (2019년), 미국 록밴드 ‘포르투갈. 더 맨’의 ‘필 잇 스틸’(2018년), 미국 듀오 트웬티 원 파일럿츠의 ‘스트레스드 아웃’ (2017년) 등이 상을 받았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4대 본상(제너럴 필드)이 아니라 장르 부문에 해당하지만, 그레미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로 꼽히며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에 오른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번에 후보로 오른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디스코 팝 장르의 싱글이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이미 역사적 기록을 쓴 곡이다. ‘다이너마이트’는 ‘핫 100’에서 통산 3주간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발매 12주를 넘긴 최근까지도 최

상위권을 지키며 미국에서 대중적으로도 흥행했다.

이번 그레미 어워즈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표된 작품이 심사 대상이다. 8월 말까지 후보를 제출 받은 뒤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투표권이 있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이 후보 선정을 위한 1차 투표를 했다. 이후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최종 투표가 이뤄진다. 수상자는 내년 1월 31일 개최되는 63회 그레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1회 그레미 어워즈에서 시상자로 나서고 올해 62회 시상식에서는 릴 나스 엑스와 합동무대를 펼치는 등 이미 두 차례 그레미 무대를 밟은 바 있지만, 후보로 입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음악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그레미에 음악 부문 후보로 오르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들은 그동안 그레미 후보 입성 및 수상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리더 RM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레미 후보에 올라 가능하면 상을 받고 싶다.”면서 “미국(팝 무대 진출) 여정의 마지막은 그레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그레미 정식 후보로 오르면서 내년 1월에 열리는 시상식에서 과연 단독 무대를 펼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래픽=타운뉴스

김혜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주연



글로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 (연출 홍종찬) 주연으로 배우 김혜수(사진)를 캐스팅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소년심판’은 소년법을 혐오하는 엘리트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법령 이슈를 중심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한 청소년 범죄와 이를 둘러싼 사회의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실제 소년 법정 판사들의 자문을 통해 일반 민·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법의 사후 처분과 적응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일상과 고민이 생생하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는 올해 초 방영된 SBS 드라마 ‘하이엔나’에서 대체 불가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사진= 호두엔유엔터테인먼트

날말퍼즐 정답									
1 유	흥	2 비		3 정	보	4 통			
사		5 자	수	6 성	가				지
7 시	8 선			수		9 각			서
				10 기	흔	자			
	11 지	은	12 이					무	
13 사	명			등			14 치	15 유	
각		16 고	분	벽	17 화				람
18 모	꼬	지			19 해	안			선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